

예수성심 공경과 밤조배



임언기 안드레아 신부
뉴욕 화이트플레인즈성당 주임

예수성심 공경의 유래

예수성심 공경은 근원적으로 프랑스 방문회 수녀 말가

리다 마리아 알라푹(1647-1690)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과 성심의 메시지에 기초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2년 반 동안 말가리다 수녀님에게 70 회나 발현하셔서 당신 성심에 관한 것을 계시함으로써 성심 공경을 공적으로 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1673년 12월 27일 사도 요한 축일에, 때때로 태양보다 더욱 빛나고 수정처럼 투명하며, 자판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상처가 박혀 있으며, 불꽃으로 타는것 같은 살아 움직이는 당신의 심장을 보여 주시며, “내 거룩한 마음(심장)은 인간에 대한 사랑, 특히 너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차 있다. 내 사랑은 그 불타는 사랑의 불꽃을 이이상 더 내 마음 속에 가두어 둘 수는 없다. 너의 수고로 이 불꽃은 널리 퍼져야 한다. 내 성심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홍수를 퍼부어 성덕과 구원의 은총으로 그들을 부요하게 하고, 마침내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려 한다. 나는 너를 부당하고 무식한 그대로 간택하여 나의 계획을 완수하려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계획은 온전히 나의 것임을 모든 이들에게 분명히 드러내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예수 성심은 말가리다 수녀님께 자주, 특히 매월 첫 금요일에 발현하셨고, (1) 첫 금요일인 보상을 위한 영성체 (2)성시간 (3) 성심상에 대한 특별한 공경 (4) 미사와 성무일도가 따르는 축일을 지킬것 (5) 개인, 가정, 국가의 공식적 봉헌 행위 (6) 아침 봉헌을 통해서 공경 행위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무엇보다도 성체 성사안에서 당신께 특별히 보상적 사랑을 바칠것을 호소하셨습니다.

(2) MEDJUGORJE

1675년 6월 16일부터 20일 사이 성체 8부 축일동안 말가리다 수녀님이 성체 앞에서 기도하고 있던 중에 예수 성심께서 당신 성심을 보이시며 “보라, 사람들을 이렇듯 사랑했고, 그들에게 이렇듯 많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이 무한한 사랑에 대해 오직 배은망덕만 당하는 이 성심을! 내 성심은 망각, 무관심, 무례를 견디고, 때로는 특별한 사랑의 유대로써 내 성심과 밀접히 결합된 이들로부터 이 모든 능욕을 당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후 당신 성심을 영화롭게 하는 특별 축일을 제정하여 지킬 것을 말가리다 수녀님께 청하셨습니다. “나는 성체축일 8부, 첫 금요일을 내 성심을 공경하는 특별 축일로 정하기를 요구한다. 그날 영성체하고 내가 제대위에 현시되는 동안 당한 모든 능욕을 보상하는 영혼들은 나에게 행한 능욕을 기워 갚게될 것이다. 이때 나의 성심은 보상하는 이들에게 사랑의 은총을 홍수처럼 풍부히 내려줄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이것이 성체축일 8부 후 금요일에 지내는 예수성심 대축일의 설정 근거가 되었고(1856년 교황 비오 9세에 의해), 그 후 6월이 예수성심 성월로 정해진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가리다 수녀를 통해 당신 성심께 사랑을 바치고 자신을 봉헌하는 이에게 12가지 축복과 은총을 약속하셨습니다.

<본지 12 페이지 참조>

예수성심 공경의 의미

예수성심 공경에 있어서, 예수님의 심장 자체가 공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첫째, 성심은 먼저 예수님께서서 사람들에게 가지시는 순수 인간으로서의 감관적 사랑의 자연적 심불이고, 둘째, 성심은 사람들에게 대한 인간 예수님

의 영신적 사랑을 뜻하는 자연적 심볼이며, 세계, 성심은 천주 성자께서 하느님스런 사랑을 드러내시는 심볼입니다. 그러니까 성심은 하느님 아버지의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 송두리채 드러난 상징이고 표현이기에, 그 심장과 함께 우리에게 신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을 드러내시는 천주 성자의 위격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실 심장으로부터, 온몸의 혈관을 통해 혈액이 순환되며 우리 몸의 혈관은 총 길이가 약 10만 Km나 되는데, 지구를 두 바퀴 도는 것과 맞먹는 거리입니다. 그 먼 길을 매일 두 번 이상 돌면서 혈액은 하루동안 약 2십 7만 Km 정도를 여행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돌지 않고, 간, 신장, 뇌, 근육 등 신체 곳곳마다 충분한 산소와 영양 물질을 공급하고 또 각 조직에 생긴 탄산가스와 노폐물을 부지런히 거둬들입니다. 따라서 혈액순환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신체 각 조직에 질병이 생길리가 만무하며, 무언가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어서 인체 각 조직에 산소가 부족하고 나쁜 노폐물들이 쌓이고 결국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물질이 끼어 있는 낡은 수도관으로 물이 잘 흐를 수 없듯이 말입니다. 이런 심장의 비유를 통해 주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은총을 충분히 묵상할 수 있고, 예수 성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은총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영혼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 절에 “군인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곧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성심에서 나온 물은 죄로 죽을 인간을 깨끗이 씻고 새 생명을 주는 세례의 물을 상징하고, 또 피는 새로 태어난 백성을 먹여 기르는 성체성사를 상징합니다. 예수성심 축일 설정 100주년이 되던 1956년 교황 비오 12세께서 예수 성심 공경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한 회칙 “Haurietis Aguas” 에서 “구세주의 상처입은 성심에서 그의 피를 나누어 받는 교회가 탄생되었다. 이 성심에서 당신 자녀들에게 초자연적 생명을 주는 성사의



은총이 풍부히 흘러 나왔다..... 성심에서 끊임없이 샘솟는 은총은 마치 일곱 줄기를 지닌 강물처럼 흘러나와 세상의 죄를 씻고 생명과 영적 활력을 불어 넣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사경문의 ‘예수성심 대축일 감사송’ 에서도 “모든 이가 구세주의 열린 성심께 기꺼이 달려가 끊임없이 구원의 샘물을 퍼 마시기를”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심장(교회의 심장)에서 흘러나와 혈관을 통해 끊임없이 흐르는 풍요롭고 무한한 혈액은 영신적으로 주님의 은총과 사랑, 곧 성령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총과 자비, 사랑의 샘으로부터 성령의 흘러넘치는 물을 공급

받으려면, 은총의 장애 요인인 죄가 없어야 하고, 우리 자신이 영신적 이물질을 청소하고 뼈저리게 회개하고 회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루카 22장 40 절에서 44 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시고는 돌을 던지면 닿을만한 거리에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한 천

사가 그에게 나타나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는 마음의 고통과 싸우면서도 굶하지 않고 더욱 열렬하게 기도하셨다. 그러는 동안 핏방울 같은 땀이 뚝뚝 흘러 땅에 떨어졌다.”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a에서 18절에는 “그분은 모든 점에서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은 친히 유혹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고,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예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주 성자께서 가지신 천주성(神性)과 인성(人性)의 사이에서, 갈등이 내재하는 신비스런 구속(Redemption)의 신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느님의 시간표 즉 구원의 섭리 계획안에서 아버지의 구원사업을 이루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그야말로 사랑하는 제자들 뿐 아니라 성부 하느님께서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외로움, 극한의 고독 체험, 하느님 부재 체험이 진행되고, 예수님께서서는 천주성은 있으시나 기능이 없는 상태가 되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당신 공생활 때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았을 때 전구에 불이 들어왔었는데, 고난중에는 성부 하느님께서 플러그를 빼신 상태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기에, 그 불완전하고 나약한 인성으로 철두철미 자원으로 고난 받아야 인류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성부 하느님의 의노가 풀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성의 고난은 당신의 자유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고난이지만, 당신이 이 고난의 잔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마시지 않으면, 인간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성부 하느님의 의노가 풀리지 않고 인류가 구원 받을 길이 없기에, 묵묵히 감수하고 감당해야만 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신앙과 순명의 차원에서는 장차 지고 가야할 십자가를 향해 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약한 인성은 너무나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펼쳐질 고난과 죽음의 불안이 엄습하고, 상상력으로는 수천대의 매질과 십자가의 무게, 못박힘의 고통과 못 세개로 나무에 매달려 찢어지는 고통과 더불어 죽음을 향해가는 길이,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더욱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할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아버지 아버지” 한번 씩 외칠때마다 섬짓 섬짓하고 심장이 뛰고, 피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셔졌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잠이 들었고, 가장 위로해주실 어

머니는 가까이 계시지 않고,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말씀과 사랑을 주셨건만 그동안 쌓아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고 모든게 수포로 돌아가고 나를 버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원망과 허무, 의미 없음이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모든 고통을 인간성으로 겪으셨습니다. 마태오 복음 23장 37절에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이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



래로 모으듯이 내가 몇번이나 네 자녀를 모으려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가, 무서운 인간의 죄가 하느님의 아드님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에서 죽음에 대한 불안의 정신고통, 마음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으며, 이것을 인성으로 참아 받고 신앙으로 극복하기 위해 피땀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었던가요? 예수님은 신성으로는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지을 죄악을 미리 내다보시고, 당신의 십자가의 구속 공로마저 헛되이 돌리게될 죄마저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의 품안에서 당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셔서, 하느님 아버지와 인간에 대한 사랑때문에 묵묵히 고난의 길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류의 죄때문에 상처받으시는 주님의 성심을 위로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발 더이상 괴로움을 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에 와서 성
밤조배(Night Adoration) 시간과 밤조배(밤중기도) 신심은 페루 출신 “마태오(Edward Crawley-Boevey Y Murga ; 1875.11.18~1961.5.4)” 예수성심회 신부에 의해 성녀 말가리다 마리아 알라꼭에게 발현하신 예수 성심의 메지시에 기초해서, 예수 성심께 가정을 봉헌하는 운동을 조직화하고 예수 성심을 가정의 왕으로 모셔, 그분께서 전 세계를 다스리도록 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만방에 전파되었습니다. 마태오 신부님은 “신심깊은 사람은 많으나 영성과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고 강론하시며, “사랑이 사랑 받으시도록 그리고 더욱 더 사랑 받으시도록 하는 것” 이 그의 열렬한 소망 중의 하나요 집념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예수 성심께 영광을 드리는 아주 간단하고 훌륭한 방법으로 마태오 신부님께서 소개하신 밤중기도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마태오 신부님은 “내가 제시하는 것은 복되신 성체 앞에서 여러분이 깨어있을 때와 똑같은 사랑과 보속의 정신으로 집에서 밤조배를 드리는 일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교회의 성시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로써 집에서 성심상 앞에서 한 달에 한 번, 가능하다면 첫 금요일 밤에 행하

는 것이고(시편 69장 20절 ; “나는 동정을 바랐으나 허사였고, 위로해 줄 이를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태 26장 40절 ;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나?”) 둘째로, 매우 열심히 대가족으로 구성된 가정이 집안 거룩한 곳에서 한 달에 한 번(저녁 10시~다음날 새벽 5시 ; 저녁 9시~다음날 새벽 6시) 각자 시간을 정해 끊어지지 않게 밤새도록 조배할 것을 권하십니다. 마태오 신부님은 “한번뿐인 밤중기도 시간에 한 사람씩 깨어 있으라고 요구한다면 지나친 일일까? 유다도 공범자들의 무리와 함께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기 위해 깨어 있는데, 왕의 절친한 친구라 하는 사도들이 언제까지 잠에 취해 있을 것인가?” 라고 강론하셨습니다. 마태오 신부님은 이렇게 예수 성심을 가정의 왕, 사랑의 왕으로 모시고 가족 구성원이 예수 성심께 봉헌하는 가족들을 ‘베타니아 가족’ 들이라 부르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 공생활 동안 특히 힘드실 때 편안하게 들리셨던 라자로의 집(마리아와 마르타의 집)이 베타니아에 있기 때문이며, 주님을 편안하게 해 드린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미국에서 가족이 뿔뿔이 제각기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예수 성심상을 제각기 있는 곳에 모셔놓고, 한 달의 하루를 정하고 각자의 시간을 정해 촛불을 봉헌하고 예수 성심을 위로해 드리는 밤조배 시간을 가진다면, 예수 성심께서 반드시 그 가정을 강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도 눈물로서 예수님의 인류 구원사업에 협력하시듯 이러한 밤조배에 함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M**

“영제 자매님들의 기도를 전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루 하루의 삶에는 많은 사연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슬픔과 괴로움은 도우심을 청하는 마음으로 모든 소망들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매 월 순례 때마다 매일 오후 6시 45분에 성모님의 발현을 직접 뵈고있는 비스카에게 전달하여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에 주님과 성모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 보내실 곳>

평화의 모후 센터 U.S.A.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11743
 Tel.(631)367-6191 / Fax.(631)367-6194

성모 마리아의 발현

1985년 12월 4일 발간



웨인 와이블

루터파 교회의 신자이며 신문사 발행인, 컬럼리스트로 활동하던 웨인 와이블 씨는 성모님께서 발현하고 계신 메주고리에 관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던 중 강한 내적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후 성모님의 발현과 메시지 전파에 헌신하게 되면서 '메주고리에' '선교사명' '메주고리에 추수' 등의 책을 썼으며, 지금까지도 계속 영문판 메주고리에 소식지를 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되는 내용은 성모님의 부르심을 받은 웨인 와이블씨가 1985년 12월 4일부터 발간한 타블로이드 요약판에 게재하였던 기사로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머틀비치 지방 신문에 6개월에 걸쳐 개별적으로 발간된 것을 본지에서 계속하여 번역문으로 소개합니다.

이번 주를 시작으로 앞으로 4주간은 중앙 유고슬라비아 언덕에 위치한, 지도에도 나타나지 않은 아주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주장되고 있는 사건을 다루면서 금년의 마지막 달 12월을 마감하고자 한다. 초자연적 종교적 사건인 만큼 많은 사람들 눈에 의심쩍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며 게다가 그 지역 주민 거의 모두가 카톨릭 신자라는 점이 더더욱 그 사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하지만 그 곳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 개인적으로 믿지 않았다면 이 기사는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자. 이 글은 사람들을 카톨릭 신자로 만들려는 의도로 쓰여진 글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다. 게다가 나 역시 카톨릭 신자는 아니다. 또한 이 글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믿게 하려고 의도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밝혀둔다. 그것은 여기 적힌 사건을 통해서, 본인의 필요에 따라 각 개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나는 단지 이 글을 통해 크리스마스 시즌에 걸맞는 정보를 제공할 뿐이다.

(6) MEDJUGORJE

중앙 유고슬라비아 산악 지대에 위치한 메주고리에라는 작은 마을에,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성모 마리아께서 지난 4년 반동안 여섯명의 십대 젊은이들에게 거의 매일같이 나타나고 계시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온 세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요즘에도 매일 나타나신다고 보도되고 있다. 발현을 의심스럽게 만들고 그 곳을 방문하기 힘들게 하려는 정부측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직접 확인하고자 몰려들고 있다. 공산 국가인 유고슬라비아는 물론 어떠한 종교나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가톨릭 신자 수가 워낙 많은 지역이라 정부측에서는 마지못해 성당 내에서의 미사만 겨우 허락하고 있었다. 증인들 혹은 목격자들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의 말을 들어 보면 발현하신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직설적이다.

“하느님께서 돌아와라. 마음을 돌이켜 하느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것을 너의 이웃들과 나누어라.” 성모 마리아는 발현 목격자인 여섯 아이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개개인에게 10가지의 메시지, 다시 말하자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관한 10가지 비밀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한다. 그 비밀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메주고리에의 성모 마리아 발현이 사실임을 알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메시지를 듣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느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발현이 멈추는 날 (그날은 여섯 아이들만 알고 있는데) 에는 메주고리에에 어떤 영원한 표징을 남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께서 아이들에게 밝히신 비밀들이 모두 이루어지기까지, 마리아께서 남기신 표징들에 의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변화될 것이라고 했다. 어린 증인들의 말을 빌리자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단식이라 했다. 실제로 그 아이들은 1981년 6월 24일 이후 매일 여섯 시간이나 그 이상을 기도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3번씩 단식한다고 했다. 여기서의 단식은 빵과 물만으로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 아이들의 나이 분포 또한 회의적인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발현이 시작될 당시 10살 15살의 어린이 각 한 명, 16살이 세 명, 제일 나이 든 아이가 17살이었다. 그 중 네 명은 여자 아이고 둘은 남자 아이였다. 그러면 아이들의 어떤 점이 성모님으로 하여금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게 하셨는가? 그들은 모두 지극히 평범하고 각자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나이도 다르다. 지능도 보통 수준이다. 한가지 예외가 있다면 미리아나 드라기체비치 라는 나이로는 세 번째 많은 여자아이가 사리에보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정도이고 지금은 그 가족이 그 곳에 살고 있다. 마리아 파블로치는 이 그룹 중 나이가 많은 편이며 심오한 정신의 소유자로 아이들 중 가장 침착하고 신앙심이 깊었다. 평균기에 마른 편인 이 아기씨는 수녀가 될 계획이다.

비스카 이반코비치, 나이순으로 두 번째인 이 아가씨는 화장기 없이도 매력적이며, 겸손하고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얼굴 표정이 풍부했다. 역시 수녀가 될 계획이다. 이반카 이반코비치, 네 명의 여자 아이 중 가장 어리다.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유일한 아이다. 아이들 중 가장 예쁜 얼굴을 가진 전형적인 십대 소녀. 그러나 지극히 종교적이다. 이반 드라기체비치, 남자 아이 둘 중 나이가 많은 쪽으로 사제가 될 계획이다. 아이들 중 수줍음을 많이 타는 편이지만 언제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일 어린 야곱 출로, 발현이 시작될 당시 10살이던 그가 지금 13살이 되었다. 나이답게 활동적이고 다른 아이들처럼 역시 아주 어리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평범한 아이 이다.

성모님 발현의 사실성 여부를 따져보려 할 때, 이 아이의

태도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야곱 또래의 우리 아이들과 이 아이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이 아이가 하느님으로 부터의 거룩한 발현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야곱은 지난 4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 두 시간 내지 세 시간씩 기도를 해 왔다. 그것은 무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계속되었고,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놀러 다니기 좋은 날씨에도 계속되었다.

나이와 성격이 다른 여섯 아이들이 그들이 만난 성모 마리아에 관해 이야기할 때만큼은 일관성 있게 일치한다는 점만 보아도 그 곳에서 무언가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강한 증거이다.



메주고리예에 관한 이야기는 수 없이 많다. 그렇지만 다음에 적은 요약문을 통해 그 중심 이야기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음 글은 아이들의 말을 빌리자면, 성모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 교황에게 보내어진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미리아나가 토미슬라브 블라슈치 신부에게 부탁하여 적은 것이라 했다. 토미슬라브 신부는 성모 마리아의 발현 초창기부터 그 일에 관여하고 있던 분이다.

미리아나에 의하면 1982년 12월 25일 성모 마리아께서는 열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을 그녀에게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리고 다른 비밀들이 이루어질 날도 말씀해 주셨다고 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다른 아이들보다 특히 미리아나에게 미래의 일들을 더 많이 알려 주셨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만나 보았고 1983년 11월 5일 그녀와 직접 대화한 내용을 적고자 한다. 성모 마리아께서 미리아나에게 알려주신 본질적인 말씀을 요약

부르심을 받고

하면 다음과 같다.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징을 우리 인류에게 나타내 주시기 전에 먼저 경고를 세 번하겠다. 이 땅에 주는 경고이다. 미리아나는 세상에 주어진 경고를 목격할 것이다. 그리고 경고가 주어지기 3일 전 미리아나는 본인이 선택한 신부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한다. 그리하여 그 사실이 알려졌을 때 성모 마리아의 발현은 자연스럽게 확인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고를 세 번 겪은 후에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징이 메주고리예에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성모님 발현의 증거가 될뿐더러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심을 되찾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홉 번째와 열 번째의 비밀은 중대한 일들로서, 세상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였다. 여러 가지 경고와 표징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이들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믿는 이들의 기도와 참회하는 마음이 죄 있는 이들이 받을 형벌을 가볍게 해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피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일곱 번째 비밀에 의하면, 세상을 위협하던 한 재난이 믿는 이들의 기도와 단식 때문에 제거되었다고 했다.

이와 같이 기도와 단식의 힘이 대단한

만큼, 성모 마리아께서는 거듭 거듭 기도와 단식을 부탁하셨다고 했다. “너희는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도와 단식 뿐이란걸 잊고 있구나. 기도와 단식만이 전쟁을 중지시킬 수 있고 자연 법칙까지도 바꿀 수 있다.”

첫 번째 경고가 이루어진 다음, 나머지 경고들도 곧이어 나타날 거라고 했다. 그 기간이 곧 변화를 위한 기간이기도 하다. 그것은 은총의 시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표징을 보고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남아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회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성모 마리아께서는 하루 빨리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도록 권고하신다고 했다.

성모 마리아께서 이토록 간절히 기도와 단식,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을 부탁하신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재난과 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리아나의 말에 의하면, 이 모든 사건들은 곧 일어날 것이라고 성모 마리아께서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래서 미리아나 역시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하루 빨리 변화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블라슈치 신부가 1983년 8월에 녹음한 대화 중에서 이들 비밀에 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목격 증인 여섯 아이들은 한결 같이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말기신 모든 비밀들이 이루어지면 세상은 바뀔 것이라고 했다. 우리 인류는 모두 옛날에 살던 사람들처럼, 즉 초대 교회 신자들처럼 믿게 된다. 그렇지만 어떻게 또 무엇이 바뀔지는, 그 비밀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상의 글은 비록 간략하기는 하지만 메주고리예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이한 일들의 여러 가지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신뢰성 여부는 우리들 각자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판단하는데 달려 있다 하겠다. **M**

〈다음호에 제 2부가 계속됩니다〉



Cenacolo

“세상의 물질이나 음식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결핍증이었습니다. 항상 거짓 웃음으로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척 하였으나 제 마음은 병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제니퍼 입니다. 저는 세 자매 중 막내이며 로스 엔젤레스에서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서 이민 오셨으며, 매우 열심히 가톨릭 신자이십니다. 저는 하느님의 존재와 중요함을 믿는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미국에 온 후 부터는 재미교포로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때는 키가 크고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인기있는 미국 여자가 되고 싶어서 제가 한국인임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배울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나는 한국 분들이 왜 한국말을 못하느냐고 물어볼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학교 성적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시는 부모님때문에 미국 친구들의 생일파티나 그 외의 사교적인 모임에는 가지도 못하고 항상 집에서 공부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 불만이 많았으며 외모에 대한 불문도 많았고 마음 속으로는 매혹적이고 시선을 끌 수 있는 패션모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인 완벽한 몸매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완벽한 몸매를 갖추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하고 저를 인정해 주지도 않을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늘 제가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살절까봐 겁이 나서 고열량의 음식은 무조건 피했으며 먹는 음식량을 줄이고 지방은 절대 금지라는 엄격한 규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정 반대로 행동할때도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 깊이 있는 허전함을 채우기 위하여 배가 아플 정도로 음식을 마구 먹기도 했으며, 저는 배가 아프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세상의 물질이나 음식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결핍증이었습니다. 항상 거짓 웃음으로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척 하였으나 제 마음은 병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결국은 여러명의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의 치료도 받아 보았고 흥분제까지 복용해 보았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면을 쓴 거짓 생활을 지탱하면서도 공부나 운동에서 남보다 잘하기를 원했고 상을 받음으로써 완전함을 추구하고 인정 받음으로써 나의 허전한 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할 때 부모님과 나누던 전화 통화 내용이 생각납니다. 생활은 어떠한지, 돈은 더 필요한지, 몸은 건강한지, 학교 생활과 성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나 저의 마음은 무엇이 제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며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나의 행복은 어떤 것인지를 마음을 터놓고 부모님과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는 스페인어와 신학을 공부하라는 가족들의 의견에 따라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유롭게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싶었지만 제가 아는 길이란 오직 공부하는 것과 일하는 것 뿐이었지요. 공부에 중독이 되어 있었고, 항상 나는 혼자라는 슬픈 마음에 짓눌리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기에 자주 성당에 가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 세계는 큰 위안이었으며 그분의 사랑이 제 생명을 구해주셨음을 지금은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는 있었지만 가슴속 깊이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엄마의 권유로 메주고리에 순례를 갔

었습니다. 저는 묵주의 기도를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었고 성모님의 발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으나 메주고리에 순례중에 회개하여 체험하게 되는 경험담에는 관심이 많았으며 제 자신도 진심으로 회개하여 지금까지의 인생을 바꾸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메주고리에 순례 중에 '시나콜로' 라는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고있는 재활원 청년들의 미소와 평화스러운 눈빛을 보았습니다. 저는 마약 중독자들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저도 이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재활원과 그곳의 규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예를들자면 TV조차도 없었지만 상관치 않고 제가 직접 목격한 그 재활원 청년들의 기쁨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나의 새로운 생활을 위해서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태리에 있는 재활원으로 떠났습니다. 처음 얼마동안은 언어의 불편과 새로운 생활로 인해서 재활원의 생활이 무척 불편했었습니다. 재활원에서는 각자의 책임하에 여러 종류의 일이 맡겨지고 있으며, 또한 함께 생활하는 이들이 아주 작은 잘못부터 자신있게 했던 일 까지도 세밀하게 잘못된 일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 당번이 되어서 늘 하던대로 마루를 닦았으나 그들이 보기에는 걸만 닦은 표면상의 청소였음을 깨우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큰 성인으로서 부모님께 꾸중듣는 어린 아이 같이 작아지는 마음이었으며 창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르침은 나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

워주기 위함 입을 알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알았으며 그분께서는 제가 초라하고 부족하여 완벽하지 못할 지라도 나를 사랑해주시는 분 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제가 가면을 쓰지않고 정직하며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심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쁠때나 슬플때도 변함없이 제 곁에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제 자신의 부족함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진실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써 저의 삶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의 모습은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모습입니다. 거룩하신 성모님께서 저를 메주고리로 불러주시어 시나콜로 재활원으로 인도해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저는 저의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저를 만나주신 살아계시는 주님께 저의 온 삶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아무런 느낌도 없이 머리로만 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성모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어 예수님께서 저와 대화 해주시기에 제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나콜로 재활원은 세상에 대한 불만속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여 가야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마약의 환각에 빠져서 세상에서는 구제불능이라고 버림받은 청년들이 자신을 되찾고 인생의 기쁨과 그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톨릭의 한 공동체입니다.

시나콜로는 마약과 알콜에 중독되어 길에서 방황하는 청년들을 구원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고 계신 엘비라 수녀님에 의하여 1983년 7월에 창립되었습니다. 본관은 이태리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과 또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너희를 돕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어머니의 사랑을 다하여 나는 너희를 축복하며 사랑하고 있단다.”

- 1993년 4월 메시지 중에서 -

의 술루소에 있으며 지금은 33개의 재활원이 전 세계(프랑스, 크로시아, 보스니아, 아일랜드, 브라질, 오스트리아, 도미니카 공화국, 미국과 멕시코 등)와 이태리의 여러지방에서 약 900명정도의 남녀 청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곳의 주 목적은 어둠속일지라도 죽음만이 마지막이 아님을 알려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의 빛이 되기위해서 입니다. 그곳의 청년들에게는 아주 단순하며 낮은 일상적인 삶의 의무가 주어지며 노동과 우정의 선물 그리고 믿음 안에서의 주님의 말씀을 되찾게 해 줍니다. 그 말씀은 저희를 위해 고통받으셨으며 돌아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저희는 예수님 안에서만 자신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뜻없이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삶을 재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죽음에 생명을 주고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눈 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당신과 함께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목격자가 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모든 희망을 잃었던 얼굴에서 다시 찾은 희망과 기쁨의 미소를 매일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곳 재활원에는 약국도 없으며 의사들의 다른 의학 치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새로 재활원에 온 청년의 중독은 어떤 약으로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약은 ‘수호천사’ 로 불리며 재활원의 생활에 어느정도 안정이 된 그들보다 먼저 재활원에 들어온 선배들입니다.



수호천사의 책임은 영육간에 몹시 허약해진 새로 온 청년

을 위하여 24시간 옆에 있으면서 함께 고통받고 같이 울면서 사탄과 중독된 약물의 유혹을 물리치는데 힘이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두 청년들의 인생에서는 몹시 중요한 시간이며 ‘수호천사’ 는 고통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새로 온 청년은 약이나 의학적이 치료조차 없는 재활원에서 어쩌면 그동안의 자신의 인생에서는 처음일지도 모르는 자신의 이익을 찾지 않고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에서 자기를 걱정해 주고 사랑해 주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재활원에서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또 배우려 하지도 않았던 삶의 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저희 청년들이 기쁨과 쾌락을 분별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당연합니다. 항상 눈앞의 쾌락을 추구해 왔으며 고통을 통해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는 그런 것은 힘도 없고 나약한,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쓸데없는 짓인줄로만 알았으나 이제는 그 모든 고통 뒤에 느낄 수 있는 큰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체험한 사람이 더욱 더 이

웃을 도울 수 있으며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곳 재활원에서의 생활 기간은 대략 3~4년 정도이며 언제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엘비라 수녀님께서 “기도하는자의 생활을 평생 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다면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활원에서의 생활은 표면상으로는 단순하지만 아주 풍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열매

부하고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바라지 않는 우정을 바탕으로 기도하는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저희들은 '사람' 이 돈과 직업 그리고 물질적인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곳에서 알게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같이 살아가는 친구들 동지들과 함께 주님과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저희들은 새로운 삶을 향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시나콜로에서 배우도록 도와주신 예수님과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M**

시나콜로 재활원은 마약에 중독되어 뒷골목에 버려진 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성모님께 의탁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곳이며, 사람들은 이곳을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열매' 중의 하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은 지금껏 자신들이 살아왔던 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회개하며 재활 과정이 끝나면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 하루를 기도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재활원 가족들이 만드는 성물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또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평화의 모후 센터 USA] 로 연락주시면 매월 순례때마다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 편집자 주 -

예수성심께 사랑을 바치고
자신을 봉헌하는 이에게 약속하신

12가지 축복과 은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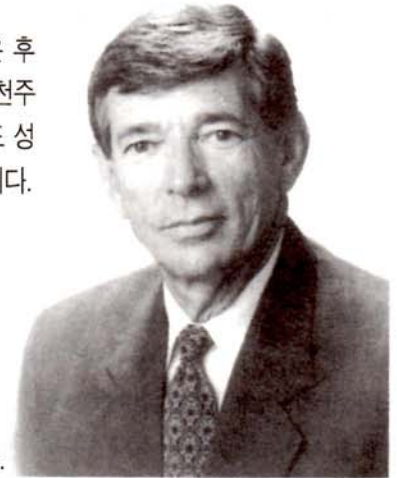
- (1) 내 성심을 공경하는 자에겐 그들의 생활에 요긴한 모든 은총을 베풀 것이다.
- (2) 나는 그들의 가정에 평화를 주겠다.
- (3) 내 성심상이나 상본을 모셔 놓고 공경하는 모든 곳을 강복하겠다.
- (4) 나는 그들의 모든 근심 가운데 그들을 위로 하겠다.
- (5) 나는 그들이 살았을 때와 특히 죽을 때에 든든한 의탁이 되리라.
- (6) 나는 그들의 모든 사업에 풍성히 강복할 것이다.
- (7) 죄인들은 내 성심에서 무한한 자비의 대양(大洋)을 발견 하리라.
- (8) 냉담자들은 열심히 되리라.
- (9) 열심한 영혼들은 빠르게 성덕과 완덕으로 나아갈 것이다.
- (10) 나는 사제들에게 가장 완고한 마음이라도 감화시키는 은혜를 주겠다.
- (11) 내 성심 공경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내 성심에 새겨, 도무지 지워지지 않게 하리라.
- (12) 나는 내 성심의 한량없는 자비로 인해 약속하노니, 9개월간 연이어 매달 첫 금요일에 영성체하는 사람들에게, 내 전능한 사랑은 마지막 통회의 은총을 주어 그들이 불행히도 성사받지 못하고 죽는 일 없게 하겠다. 나의 성심은 마지막에 그들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겠다.

“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

치유와 은혜의 밤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해다오 !

개신교 신자이며 신문기자였던 웨인 와이블씨는 성모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은 후 1985년부터 세계 곳곳에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92년도에 온 가족이 천주교로 개종, 영세를 받았습니다. 웨인 와이블 씨는 천주교 뿐 아니라 개신교회에서도 성모님의 메시지와 묵주의 기도를 전하며 외적, 내적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사 : 웨인 와이블

그의 저서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메주고리예' '선교 사명'
'메주고리예 추수' 등이 있습니다.

일 시 : 2001년 7월 6일(금) 오후 8시 : 미사, 강연, 치유예절
2001년 7월 7일(토) 오후 1시 ~ 3시 : 청소년들과 함께
2001년 7월 7일(토) 오후 7시 30분 : 미사, 강연, 치유예절

장 소 : 롱아일랜드 그레이트넥 성당
592 Middle neck Rd. Great neck, NY 11023
Tel.(516)466-8700/8704

주 관 : 미주 평화의모후센터 U.S.A.

주 최 : 롱아일랜드 그레이트넥 한인 성당

문의처 : Tel. (516)466-8700/8704

(631)367-6191/6221

Fax. (631)367-6194/(516)466-6006

♣ 오시는 길 ♣

* L.I.E. Exit 33 으로 나오셔서 Lakeville Rd. N.를 따라 2.5mile 가면 왼편에 보임. (Northern Blvd. 를 지나면서 길 이름이 Middle Neck Rd.로 바뀝니다.)

* Northern Blvd. E.로 오시다가 Middle Neck Rd.에서 좌회전하여 1.8mile 가면 왼편에 보임

눈물을 닦아주신 성모님

메주고리에 성모님,

저는 이 말을 1995년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친지로부터 처음 듣고 그가 정성스럽게 건네주는 웨인 와이블의 '메주고리에' 책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새해 초 부터 메주고리를 가고싶은 생각이 간절한 소원으로 바뀌어 드디어 성모님의 부르심으로 4월 7일 평화의 모후센터 제3차 순례팀으로 메주고리를 방문하는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속에서 성서에 나타난 성모 마리아의 일생중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잃으셨던 예수님을 사흘만에 성전에서 찾으신 성모님의 애타하심과(루가 2, 41~52)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서계신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애통해 하시는 마음(요한 19, 25~27)을 그려보며 성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행기가 파리 공항을 거쳐 크로시아의 스피릿(Split)공항에 도착하니 우리를 메주고리예로 데려갈 관광버스와 현지 안내인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다른 비행기로 도착한 다른 순례팀과 합류하여 일행 45명은 안상인(평화신문 미주지사장)신부님, 류해욱(예수회) 신부님을 인솔사제로 모시고 평화의 모후 센터의 남 그레고리오 형제와 함께 메주고리예를 향하여 버스에 올랐습니다.

스프릿 공항에서 약 1백마일 떨어진 메주고리예로 가는 길은 아드리아 해안가의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돌산과 나무들 그리고 작은 시골 마을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 평화로운 길목이었습니다.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의 국경을 넘어 메주고리예 성 야고보 성당(St. James Church)에 저녁 7시경 도착하니 비가 뿌리는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당 밖에서 미사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성당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1981년 6월 24일 이 작은 마을에 성모님께서 6명의 목격자들에게 처음으로 발현하신 후 지금까지 약 20여년 동안 발현을 계속하고 계신 메주고리예, 이곳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고 겸손했으며 매일 저녁 생업에서 돌아와 3시간 이상을 교회에서 묵주기도, 미사, 치유예절 등에 참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행동하는 믿는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

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참석한 성 야고보 성당의 미사에는 세계 각국에서 오신 40여명의 신부님들이 공동으로 미사를 집전하고 계셨으며 크로시아어로 진행된 미사는 참으로 신비스럽고 장엄하였습니다.

미사 전에는 환희, 고통의 신비 묵주기도가 봉헌되었으며 고통의 신비 4단이 막 끝나면 성모님이 발현하시는 오후 6시 45분(현지시간)이 되어 잠시 기도를 멈추고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 음악이 흘러 나왔습니다. 미사 후에는 성모칠고와 영광의 신비가 봉헌되어 매일 저녁 4시간 이상을 성 야고보 성당에서 보냈으며 또한 낮에는 소성당에 모여 한국말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특히 성 목요일에 있었던 성시간(성체현양시간)에는 살아계신 성체를 바라보며 묵상, 찬양, 성서를 반복하였는데 저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하느님께 간절히 빌었던 기도(창세기 18, 16~33)를 생각하며 아직은 저를 멀하지 마시고 시련과 고통을 주심으로서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닦아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성모님의 초기 발현 장소인 발현산(Podbrdo Hill)은 바위와 자갈인 돌산이었는데 신발을 벗고 묵주기도를 드리며 정상에 올라 성모님 발현 장소에 세워진 십자가 밑에서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으며 해발 500미터인 십자가산(Krizevac)을 날씨가 화창했던 성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며 14처까지 올랐으며 15처(부활처) 앞에서 함께 기도와 성가를 바쳤습니다.

15처(부활처) 근처에서 작년 11월 24일 십자가의 길 기도를 인도하시다 선종하신 슬라브코(Slavko Barbaric) 신부님의 선종 장소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었으며 산 정상에 1933년 마을 사람들의 믿음으로 세워진 무게 15톤의 대형 콘크리트 십자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6명의 선견자들을 보호해 준 장소를 기념하기 위하여 발현산 밑에 세워진 청십자가(Blus Cross) 앞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놓여 있었으며 기도하는 순례객들이 많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2천 5백 이상이 방문한 메주고리예!

우리가 방문했던 성주간과 부활절에도 세계 각국에서 많은 순례객들이 성모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곳에 모여 산길에서나, 교회에서나, 거리에서나 어디든지 강물처럼 넘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 토요일 아침에는 선견자 비스카(Vicka Ivankovic)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 따듯한 미소로 한사람, 한사람 우리 모두에게 눈을 맞추며 인사하는 비스카의 미소와 강인함은 깊은 감명을 주었는데 조금도 피로



의 기색 없이 하루에도 여러차례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하게도 수 많은 순례객 앞에서 비스카는 눈물로 범벅이 된 나의 아내를 품에 꼭 껴안고 주모경을 인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19년 전 엘비라 수녀에 의해 창설된 마약 중독자 치료소를 방문하여 신앙과 노동을 통한 절제로 치유되고 있는 이들의 신앙체험을 들을 수 있었으며, 메주고리에 성모님과 가장 닮았다는 “티할리나” 성당의 성모상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발현 초기에 목격자들을 보호해주고 성모님 메시지를 전파하시다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르신 요조(Jozo Zovko) 신부님이 사목하시는 ‘시라키브르에 성당’을 방문하여 성령 안수를 받았으며 한국인을 특히 좋아하시는 요조 신부님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요조 신부님의 영어 통역자 Nancy의 동시 통역은 놀라웠으며 성령의 능력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날 요조 신부님의 강론중에 “돈을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사랑과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다.” 라고 한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우리 일행은 4월 12일 세계적인 관광지 ‘드브로브닉(Dubrovnik)’을 방문하였는데 성곽 주위는 한쪽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아름다웠으며 성인들의 유해가 보관된 성마리아 대성당과 부레시우스 성당안에 보관된 1,700년 전의 순교자 실반 성인의 시신이 썩지않고 그대로 유리관에 안치된 것을 보고 하느님의 능력이 보여주는 기적에 다시 한번 영광을 드렸습니다. 믿음 약한 저에게도 이번 순례중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태양이 춤추며 주위를 돌고, 태양 안에서 무수한 성체들이 떨어지며, 태양 안에 성모님, 십자가 태양 주위의 노랑, 자주, 분홍의 무지개 모습, 산위에 진동하는 장미향기, 낮이나 밤이나 울어대는 새소리와 닭소리, 천사와 십자가 모양의 구름, 밤하늘에

번쩍이는 섬광 등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메주고리에 순례여행에서 돌아와 성모님이 주신 기도, 단식, 통회, 성사, 평화의 메시지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으며 다시 그곳

을 찾고싶은 마음을 말로 다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오신것 처럼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마리아를 통하여 오실것을 믿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메주고리에 순례에 더 많이 참가하시어 세상에서 맛보는 평화가 아닌 하느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느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 미네소타에서 최 베드로 -

축하 드립니다.

미네소타 지역에 메주고리예를 순례한 신자들을 중심으로 ‘메주고리에 평화의 기도회’가 창설되어 지난 5월 6일 첫 기도회를 갖고 주님과 성모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기도회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메주고리예를 직접 방문하도록 권면할 것이라고 합니다. 매달 1회씩 갖게되는 미네소타 지역 ‘메주고리에 평화의 기도회’에 관한 문의는 전화 (651) 450-7452 (최종권 베드로)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식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알라바마 성당의 윤안젤라 자매님, 미네소타 성당의 최종권 형제님과 자매님들, 메릴랜드 성당의 조비오 형제님, LA 성토마스 성당의 임실비아 자매님, 어싱성당의 이로서 자매님 -

위의 명단은 본지 ‘메주고리에’ 발간을 위하여 도움주신 분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매 월 초에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모님과 예수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편집인 남홍익 그레고리오 -

변화되는 남편을 보며

+ 찬미 예수님

우선 제 마음속에 현존하고 계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신비로운 신앙의 기쁨과 평화를 찬미하며 줄필이나마 몇 자 적어봅니다. 미주 평화의 모후 센터에서 주관하는 메주고리에 순례팀으로 두 차례 다녀온 저의 남편이 지난 3월말경 메주고리에 현지에서 흥분되고 다급한 목소리로 “모든 일 다 접어두고 평화의 모후 센터 남미카엘라 자매님께 순례신청을 꼭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강압적이고 명령조의 통화에 심히 못마땅하고 언짢은 심정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4월부터 바빠지는 제 사업과 세 자녀를 둔 엄마의 처지로서 선뜻 열흘이라는 시간을 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또한 메주고리에를 다녀올 때마다 믿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외적 체험담을 들려주는 남편의 모습이 속된 말로 ‘맛이 간 사람’으로만 느껴져 그곳에 대한 거부감마저 지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곳을 다녀올 때마다 변화되는 남편의 모습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사에 신경질적이고, 강압적이고, 불만투성이 활화산 같은 성격의 남편이 사랑과 평화로 가득찬 경이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15단의 묵주기도, 칠기도, 9일기도, 성서읽기, 매주 낚시터로 직행했던 남편이 성당으로

방향을 바꾸는 등 글썽 며칠이나 갈까? 하고 지켜보았지만 남편의 신앙은 식지않고 더욱 더 열심이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다.” 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공학을 전공했고 14년간 중 고등학교 화학선생 생활을 했던 남편도 미주 평화의 모후 센터의 남 그레고리오 (저희와는 같은 본당, 같은 구역 식구이고, 각별히 가깝게 지내는 관계의)형제님이 메주고리에를 수 차례 다녀와서 그곳의 신비스런 체험담을 들려줄때마다 코웃음, 비웃음, 듣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비아냥거리며 한쪽귀로 흘려버리곤 했

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 남편이 한 술 더 떠서 날뛰는(?) 것이었습니다. 2차 순례를 마치고 돌아온 그이가 1주일만에 저와 제가 43세때 낳은 다섯살짜리 늦둥이 딸 현주를 데리고 3차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행기를 세 번 갈아타고 거기에다가 버스로 세시간 걸려 도착한 곳은 정말로 볼품이 없는 돌산으로 둘러싸인 메주고리에 !, 남편에 대한 불만과 실망이 터져오를듯 하였습니다. 차라리 뉴욕에 그냥 있었으면 부활절 대목이나 보는 것인데, 이리저리 설치는(?) 남편이 무척이나 밍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도 모르게 마음의 평화가 오고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현산, 십자가산, Blue Cross, St. James 성당의 미사, 요조신부님의 강론과 치유예절, 선전자 비스카의 미소, 티할리



나 성모님 등등이 ‘나’ 라는 자신을 변화시켜 주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진한 장미향기, 온 천지가 금색으로 바뀌는 초자연적인 외적 체험, 남편의 묵주가 금색으로 변하는 등 등 정말로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비록 발바닥 신자에 지나지 않았지만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는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담아두고,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그 모든 것을 믿는다고 했었지만 시계추 처럼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초자연적 체험을 통해 주님의 현존하심을 확실하게 알게된 것입니다.

3차 순례는 때마침 부활절이 끼어 있어서 더욱 더 의미가 깊었습니다. 장장 6시간 이상의 부활절야미사의 은혜로움은 평생 잊지 못할것입니다. 잊지못할 메주고리에 ! 당신을 보여주신 주님과 성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도신부님이셨던 안상인 신부님, 류해욱 신부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남 그레고리오, 미카엘라 부부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제 곁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남편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금은 매일 묵주신공, 기도, 성서읽기를 열심히 하고 주일은 가족과 함께 거룩하게 보내고 있으며, 지독하게 냉담 중이던 장남 가리노가 다시 성당을 찾게되어 정말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뉴욕에 도착 하자마자 4일만에 다시 4차 순례의 길에 오르는 저의 남편을 기꺼이 주님께 봉헌 하나이다. 전에는 무척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세속적 음악만 하던 제 남편 알폰소를 당신의 음악 봉사자로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3차 순례 가족들에게도 안부인사 드리며 아울러 미주 평화의 모후 센터의 주님사업이 주님과 성모님의 가호안에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빕니다.

- 뉴욕 그레이트넥 성당 강경선 제오지아 -

은총의 기회

사랑하는 그레고리오 형제님 그리고 미카엘라 자매님,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합니다. 하느님의 풍성한 사랑안에 계심을 느끼고 저도 이곳에 와서 성모님 예수님의 사랑 풍성히 느끼고 그리고 정말 평화로운 마음 갖고 갑니다. 이렇게 소임에 대한 걱정 없이 있다가 가기는 정말 처음인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오고 싶습니다. 2001년 삼천년기의 첫 해에 메주고리에 순례는 하느님의 선물,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며, 어려운 상황의 저에게 이토록 좋은 은총의 기회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멕시코에서 정은희 엘리사벳 -

그곳에서 살고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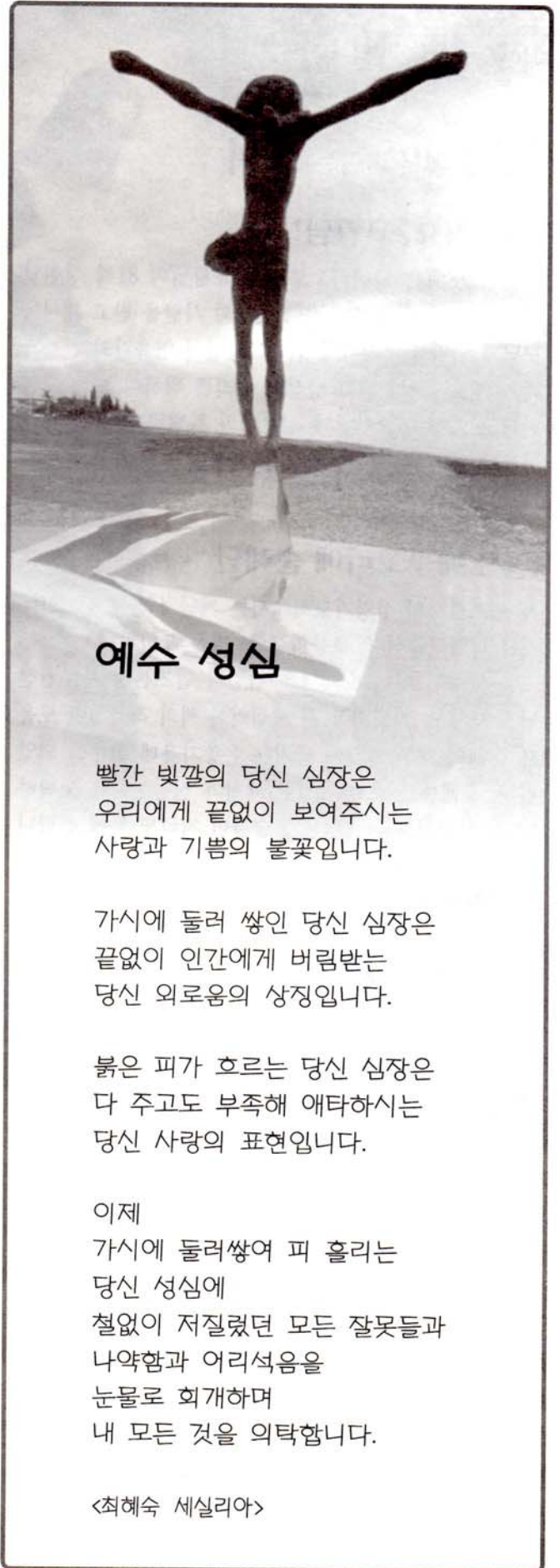
저는 메주고리에에서 은총 많이 받고 지금 제자리에 돌아와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가고싶은 메주고리에, 그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지워지지않아 자주 울곤한답니다.

- 손 테레사 -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

성모님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하시는 일에 항상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LA, 성토마스 성당 임 실비아 -



예수 성심

빨간 빛깔의 당신 심장은
우리에게 끝없이 보여주시는
사랑과 기쁨의 불꽃입니다.

가시에 둘러 쌓인 당신 심장은
끝없이 인간에게 버림받는
당신 외로움의 상징입니다.

붉은 피가 흐르는 당신 심장은
다 주고도 부족해 애타하시는
당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가시에 둘러쌓여 피 흘리는
당신 성심에
철없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과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눈물로 회개하며
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최혜숙 세실리아>

편십실에서 전하는 소식

축하드려요, 교황님!

지난 5월 18일은 요한바로 2세 교황님의 81세 생신날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특별한 존경과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교황님의 영육간의 건강과 함께 티없으신 성모님의 성심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봉헌하고 계시는 교황님과 성모님의 특별하신 지향이 이 세상을 향하여 꼭 이루어지시길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합니다.

제 4차 메주고리에 순례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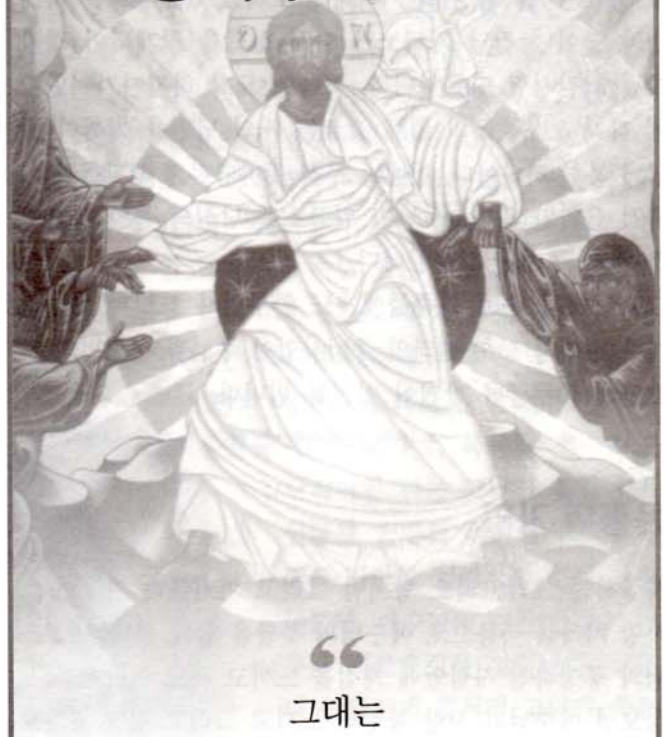
뉴욕 퀸즈성당의 성령기도회에서는 지난 4월, 메주고리에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두 명을 포함하여 모두 65명으로 구성된 이번 순례단은 김일영 퀸즈본당 부주임신부님을 모시고, 기도회장 최 세실리아 씨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순례의 모든 일정이 넘치는 은총가운데 마무리 되었습니다. 순례를 통하여 특별한 체험과 신앙성숙을 고백하시던 회원 여러분의 밝은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루 하루를 주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함께 지내고 계실 여러분들께 마음으로 부터의 안부를 전합니다.

악의 종말시대

지금 우리 인류는 사탄이 저지르는 것과 같은 엄청난 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더이상 많은 시간을 기다려 주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전세계를 파멸로 이끄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늘 이야기 해오던 세계의 종말이 아니라 악의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것은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가 저지르는 교만함과 자만심 그리고 냉담함의 죄는 끝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오스트랄리아 에서는 돼지의 몸속에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의 유전자를 합성 배합시킨 태아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끝나서 상당히 깊은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들의 이러한 죄를 보시고 계시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더 참고 기다려 주셔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 오하이오에서 안젤리카 수녀 -

(18) MEDJUGORJE

2001 미동북부 성령대회



“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스런 군인답게
그대가 받을 고난을
달게 받으시오.

- II 디모테오 2,3-

”

주강사 : 임언기 신부

치 유 : 박용일 신부, 김택구 신부

강 사 : 윤석린, 임문수, 정영옥

일 시 : 2001년 7월 21일(토)

오전 9시 - 오후 10시

장 소 : Immaculate heart academy

500 Van Enburgh Ave.
Washington Township, NJ

문의처 : Tel.: (201)398-1170

Fax.: (201)398-1171

(봉사자협의회 사무실 : 이 데레사 자매)

8월 청소년들의 메주고리에 피정

International Youth Festival at Medugorje

메주고리에 본당에서는 매년 8월 첫주를 청소년을 위한 주로 정하고 Youth Festival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질만능과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살고있는 전세계의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삶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느님과 성모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영육간에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이 행사는 전세계의 청소년들이 참석하여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축복과 함께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함으로써 변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인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순례 일정 : 2001년 7월 29일 부터 8월 6일 (8박 9일)

지도 신부 : 추후 발표

순례 경비 : \$1590 - 뉴욕 JFK출발기준

연 락 처 : 남 그레고리오 Tel.(631)367-6191, Fax.(631)367-6194

- 현대식 숙박시설을 갖춘 2인 1실, 또는 3인 1실과 함께 1일 3식(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합니다.
- 메주고리에 순례 일정에는 유럽에서 긴 역사와 견고하기로 유명한 성곽도시로써 아드리아 해안가의 아름다운 경치로 널리 알려졌을 뿐만아니라 가톨릭을 고수해 오며 1700년 동안이나 썩지않고 있는 실반 성인의 기적의 유해가 있는 유명한 신앙의 유적지인 Dubrovnik성지순례와 Split에 있는 성지순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메주고리에 순례를 원하시는 신부님과 수녀님들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명 이상의 그룹은 원하시는 날짜에 순례일정을 정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 평화의 모후 센터 U.S.A.에서는 세계 곳곳에 발현하시어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성모님의 소식지를 매 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 메주고리에에 관한 서적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메주고리에에서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가 1, 2, 3편의 테잎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 매 월 순례가 있으니 남 그레고리오 형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메주고리에 8월 순례

사랑하는 자녀들아,

누구나 예외없이 너희 모두를 거룩한 삶의 길로 초대한다.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성화의 선물을 주셨으니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더 기도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느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축복하고 있으며 너희들이 성화를 향한 길과 너희들의 증언이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 하나가 되고 또 그것이 하느님께는 기쁨이 되도록 그분께 기도드리고 있단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다.

- 1998년 9월 메시지 -

순례 일정 : 2001년 8월 13일 부터 22일 (9박 10일)

지도 신부 : 추후 발표

순례 경비 : \$1590 - 뉴욕 JFK출발기준

연 락 처 : 남 그레고리오 Tel.(631)367-6191, Fax.(631)367-6194

평화의 모후 센터 U.S.A.

- 1) 거룩한 공의회는 모든 평신도들이 성령의 움직임에 기꺼이 아낌없는 마음으로 응답하고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을 특별히 긴급하게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한다.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교령 33항- 는 말씀에 응답하여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2)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도 메주고리예라는 작은 산골마을에 매일 발현하고 계시며 매달 25일에는 하느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전해 주시는 성모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 3)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서 깊은 체험을 통하여 사랑이 가득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한 알의 작은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 4)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매달 첫째 토요일에 티없으신 성모 성심에 기도드리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메주고리에 성지순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평화의 모후센터 U.S.A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평화의 모후 센터 U.S.A. 회원모집 안내

성모님의 메시지 ‘메주고리에’ 100부면, 10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복음화 운동에 적극 참여 하시고자 하는
 한인 가톨릭 공동체 회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모후 센터 U.S.A.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운영됩니다.

- 주문량**
- | | | |
|-----|-----------------------------------|--------------|
| (1) | 25부 <찬조금 \$25 + 우송료 \$5> | 합계 \$30 () |
| (2) | 50부 <찬조금 \$50 + 우송료 \$5> | 합계 \$55 () |
| (3) | 100부 <찬조금 \$100 + 우송료 \$10> | 합계 \$110 () |
| (4) | 250부 <찬조금 \$250 + 우송료 \$20> | 합계 \$270 () |

* 해당란에 해 주시고 수표 발행은 QPC U.S.A.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인

성명	(한글)	(영문)
주소		
전화		팩스

주문처

평화의 모후 센터 U.S.A.
Queen of Peace Center U.S.A.
 22 Round Swamp Rd.
 Huntington, NY 11743
 Tel. (631)367-6191 / Fax. (631)367-6194